

물류시설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

무역협회, 영업용 706개 중 67.3% 몰려 … 자금지원 · 규제안화 요구

전국 영업용 물류시설 10곳 가운데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영업용 물류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영업용 물류시설 706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시설이 전체의 3분의 2를 상회해 67.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물류시설을 운영 개시년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는 영업용 물류시설이 평균 511% 늘어났으나, 수도권은 무려 73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물류시설 소재지는 수도권 67.3%에 이어 부산권 12.3%, 울산·경남권 7.4%, 충청권 5.5%, 대구·경북권 3.1%, 호남권 3.0%, 강원·제주권 1.4% 순이었다.

수도권 물류시설 가운데 75.1%는 경기지역에 위치했으며 인천 15.2%, 서울 9.7%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접근성과 상대적인 지가 프리미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류시설의 규모는 자본금 5억원 이하가 49.6%, 10억~100억원의 중형규모가 28.0%, 대규모인 100억원 이상이 5.3%로 나타났고, 매출액은 10억~50억원이 41.8%, 100억원 이상이 20.6%로 조사됐다.

일반 상온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전국 평균 88%인 가운데 대구·경북권(92%), 호남권(90%), 수도권(89%)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울산·경남권(75%), 부산권(76%), 충청권(80%) 등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반면, 냉동냉장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전국 평균 78%로, 일반 상온시설에 비해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평당 이용료는 일반 상온시설이 수도권(3만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이용료가 전국 평균(2만9072원) 이하로 조사된 반면, 냉동냉장시설은 권역별 요금 편차가 적게 나타난 가운데 전국 평균 5만5265원이었다.

한편, 물류업계는 자금조달력이 약한 곳에 자금지원, 물류시설 표준화 및 정보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제공을 강화하고 물류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인력 활용의 적극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3>